"AI 청년인재들 광주로 몰려온다"

인공지능사관학교 참여 열기 '후끈'
3기 330명 모집 전국 772명 지원
합격자 6월11일 발표, 20일 입교

광주시가 최적의 실무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개소한 인공지능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에 수도권 등 전국에서 청년 지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330명을 모집하는 사관학교 3기 교육생 선발에 772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80명을 모집했던 1기(5.8대 1), 2기(3.38대 1)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수도권 등 타 지역 지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번 3기 모집에는 광주에서 458명,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314명(40.7%)이 지원했다. 지난해 타지역 지원 비율은 34.4%였다. 특히 수도권은 2기 78명보다 두배 이상인 161명이 지원했다.

접수현황을 보면 취·창업 준비생 568명(73.6%), 학생 178명(23.1%), 스타트업 종사자 26명(3.4%)이었으며, 이 중 남자 492명(63.7%), 여자 280명(36.3%)이었다.

최종선발된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 플랫폼·인프라 등 3개 트랙과 7개 마이크로 트랙으로 구분된 10개 반에 배치돼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교육을 받는다.

2020년 7월 개교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관학교는 1기 155명, 2021년 2기 157명의 인공지능 융합인재를 양성했다. 올해 3기는 현장의 폭발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입학 정원을 330명으로 늘렸다.

3기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린 배경으로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성과와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기관 이전 가속화, 새 정부의 실리콘밸리 광주 조성 약속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3기 교육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스마트인재개발원과 엘리스, 한국표준협회가 가진 브랜드 시너지 효과와 유기적인 지역별 모집홍보도 주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역량있는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오는 것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광주 인공지능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광주가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명실상부한 융합인재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K-POP' 공연 지난 8일 광주 동구 금남나비공원에서 광주관광재단 주최의 'K-POP'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1 선거공감' 기고 〈1〉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선거 문화 형성을 위해 광주일보와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6·1 선거공감' 릴레이 기고를 게재합니다. 기고는 학계·시민단체,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년 등 각계 각층의 유권자들이 참여합니다. 유권자들과 선거와 관련한 소통 강화, 공감대 확산을 기대합니다.

정책대결의 TV 대담·토론회를 기대하며

심연수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2022년 6월 1일은 대한민국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이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전망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도입·시행된 이후로,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중계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벽보·선거공보를 통해서도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들에 대한 각종 대담 토론회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서 투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현명한 유권자들을 향해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들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에 기대지 않고 유권자들의 더 낳은 삶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들이 왜 필요한지를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에 관심을 두어, 객관적인 사실과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적 선택을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람직한 유권자들은 과거의 정치행태와 습관에 의존하지 않고, 각종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출마자들의 대담·토론의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실현가능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비판할 것이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제시하는 실현하지 못할 공약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릴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내세울 공약을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역과 국가사회를 위해서, 어떤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할 능력이 있는가를 TV 대담·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농어촌 빈집 '귀농·귀어·귀촌인 집' 탈바꿈

전남도, 매년 20동 이상 조성
도시민에 쾌적한 주거시설 지원

전남도가 내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귀어·귀촌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이 8724호로 조사됨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거주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 개량을 촉진해 도시민을 유치할 방침이다. 귀농어인의 집은 귀농·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익히고, 농촌생활을 경험하도록 임시 거주지를 지원해 인근 지역으로의 귀농·귀어·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속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정착 기간을 단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귀농·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했거나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입주가 결정되면 월 10만~15만원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입주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인의 집은 연고는 없지만 전남으로 귀농·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남 각 지역에 설치된 귀농어인의 집에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27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운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나선다

6월10일까지 대회 참가 접수

광주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창업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로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제품을 개발 완료한 서비스 개발 창업(예정)자가 참가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6월3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psm32@ccei.kr)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6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광주시장상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작 중 부문별 최우수작 2건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